

# 국제 분쟁의 한 축이 된 불교 무장세력

아지즈 뉴욕대 교수, <Huffington Post> 지에 기고

가까운 미래, 불교 무장 세력이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분쟁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마하 호사인 아지즈(Maha Hosain Aziz · 뉴욕대 정치학) 교수는 <Huffington Post> 지의 기고문에서 "2009년 스리랑카 내전 종결 이후 자국의 소수민족인 이슬람교도를 향한 불교계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미얀마 불교계 역시 2012년 이후 자국의 이슬람교도를 배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최근 두 나라의 불교 지도자들이 '반 이슬람(anti-Islamist) 협정'을 맺어, 두 나라에서 이슬람교도의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 불교계의 '반 이슬람 협정'은 지난 9월 아신 위라투(Ashin Wirathu · 미얀마) 스님이 스리랑카를 방문, 그곳의 불교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에서 이슬람교도를 몰아내자'는 데 공의를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미얀마의 빈 라덴"으로 불리는 미얀마의 불교 지도자로, 이슬람교도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이용하지 말자는 '969' 운동을 주도하고, 불교도 여성과 이슬람교도 남성의 결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신과 역할을 하는 등 반 이슬람 정서를 부추기는 과격파 불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물론 불교 무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다.

마하 호사인 아지즈 교수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미얀마와



이슬람교도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피난온 이슬람교도 난민가족(사진 왼쪽). 미얀마의 빈 라덴으로 불리는 아신 위라투 스님.

## 2015년에는 불교 무장세력에

대응하는 방법 찾는 것이 화두

불교국가내 반이슬람 협정 막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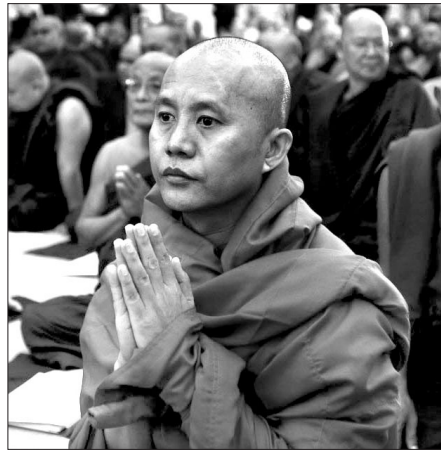
스리랑카 불교계에게 무장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달라이 라마는 '불교 무장 세력'을 '또 다른 십자군'이라고 표현했다. 태국 불교 지도자들도 역시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은 불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달라이 라마와 보조를 같이하며 스리랑카와 미얀마 상황을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지난 10월 미얀마를 방문했을 당시 완곡한 어법으로 '불교 국수주의'에 우려를 보였다.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 또한 "불교 무장 세력의 폭력이 아시아를 침몰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노력이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반 이슬람 정서'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다"고 지적한 마하 호사인

아지즈 교수는 "불교 무장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고, "아시아 불교계는 물론 정치계 역시 미얀마와 스리랑카를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교 무장 세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2015년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마하 호사인 아지즈 교수는 우선 "왜 불교 무장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학자와 사회학자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우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문화적 소외감이 팽배했었고, 지금과 같이 소수민족을 차별하려는 것은 그 소외감의 표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 민족 서사시로 꼽히고 있는 '마하방사(Mahavamsa)'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이 책은 스리랑카 불교사를 기록한 책으로 석가모니 입멸로부터 아소카 왕 때까지의 불교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종교가 다른 소수민족을 차별하



는 데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관련 학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마하 호사인 아지즈 교수는 "반 이슬람 협정"의 확산도 막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아신 위라투 스님이 주도하고 있는 이 협정에는 캄보디아, 부탄, 라오스, 베트남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자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시대 종교문화는 종교간 소통은 물론 동일 공동체 안에서조차 소통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Huffington Post> 지는 "종교들의 거대화, 극대화, 편주의 등을 지향하는 추세 역시 소통의 부재에서 왔다"며 "이러한 점에서 불교 무장 세력의 존재가 해당 나라의 문제를 넘어 불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극단적인 갈등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마하 아지즈 교수의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서양의 최초 불교전래자는 아일랜드인"

찰스 파운드스가 1889년에 서양에 불교 전파



지금까지 불교가 서양으로 전래된 것은 1899년 캘리포니아 라는 게 정설이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기록물에서는 이보다 10년 앞서 찰스 파운드스가 아일랜드에 불교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한 불교사원.

"불교를 서쪽에 최초로 전래한 사람은 아일랜드인 찰스 파운드스(Charles Pounds)이며, 그 시기는 1889년"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Irish Times> 지는 "아일랜드와 일본 불교학계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서양의 최초 불교 전래자는 '1889년 아일랜드인 찰스 파운드스'라는 사실을 담은 기록물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또한 <Irish Times> 지는 "지금까지 불교가 서양으로 처음 전래된 것은 '1899년 캘리포니아'라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아일랜드와 일본 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기록물에서는 이보다 10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관련 학계는 물론 불교계가 이번엔 발견된 기록물에 관심을 쏟는 이유"라고 의미를 더했다.

<Irish Times> 지에 따르면, 브레인 보킹 교수, 요신기 시니치 교수, 로렌스 록스 박사 등이 당시 런던에 개설된 '일본불교 포교단(Japanese Buddhist Propagation Society)' 관련 기록물을 함께 연구하는 과

정에서 '찰스 파운드스가 1889년 영국 주재 일본불교 포교단의 사무국 대표로 최초 부임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브레인 보킹 교수 등은 "찰스 파운드스는 1840년 아일랜드 중소도시 워터폴드(Waterford)에서 태어난 인물로, 그는 14세 때인 1854년부터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며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지를 여행하던 중 마지막 방문지 일본에서 '이국의 문화와 종교'에 매료됐다"며 "1879년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10여 년간 일본의 언어, 문화, 종교, 역사 등을 공부한 그는, 서양 최초의 일본 연구가로 귀국한 후 영국 주재 일본불교 포교단 사무국 대표로 재직하며 서구 불교의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했다.

<Irish Times> 지는 이번엔 발견된 기록을 인용, "찰스 파운드스는 1893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07년 12월 임종할 때까지 일본에 머물렀다"며, "브레인 보킹 교수 등은 최근 일본 코베(Kobe) 외국인 묘역에서 찰스 파운드의 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부처님 등장한 술집 홍보 포스터에 분노

미얀마 불교계 민족주의 단체 고소... 블랙우드 씨 등 구속

미얀마 랭군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뉴질랜드인이 '종교 모욕죄'로 미얀마 법정에 서게 됐다.

<Guardian> 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술집 홍보 포스터에서 환각적인 조명을 배경으로 핸드폰 통화하는 모습의 부처님을 게재한 술집 매니저 필립 블랙우드(Philip Blackwood, 32) 씨가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Guardian> 지에 따르면, 블랙우드 씨의 홍보 포스터는 페이스북 게재와 동시에 미얀마 SNS 상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미얀마불교계의 민족주의 단체인 '종족과 종교 보호를 위한 연합회(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Race and Religion,

이하 Ma Ba Tha)는 최근 이를 이유로 블랙우드 씨 등을 고소했다.

블랙우드 씨는 홍보 포스터 게재에 이어 SNS 상의 반발이 커지자 '최근 개장한 술집 V Gastro 홍보를 위해 이곳에서 가장 친숙한 이미지(부처님)를 선정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그러나 부처님을 이용한 홍보 포스터로 촉발된 SNS 상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블랙우드 씨와 함께 2명의 미얀마인 V Gastro 소유주 톤 투레인(Tun Thurein, 40)와 부매니저 핫트 코코 르윈(Httt Ko Ko Lwin, 26) 씨 등이 구속됐다.



미얀마 랭군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뉴질랜드인이 '종교 모욕죄'로 미얀마 법정에 서게 됐다.

"구설수에 휘말리도록 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는 게 블랙우드 씨의 진술"이라고 밝힌 미얀마 경찰 관계자는 "미얀마에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모욕이나 훼손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점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Guardian> 지는 "블랙우드 씨를 비롯

해 V Gastro 관련자 다른 2명에 대한 체포 현장에서 20여 명의 기자들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다"며 "랭군 주재 뉴질랜드인이 '종교 모욕죄'를 범한 직후 미얀마 경찰이 '구속'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성향이 현재 미얀마의 주류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수식관 명상으로 학생들 마음 다스려

인도서 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명상 프로젝트 실시

인도에서 2500만 초중고생을 위한 대규모 명상 프로젝트가 시작돼 눈길을 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2500만명의 초중고생을 위한 명상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인도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숨을 다듬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법인 수식관(數息觀) 수행이다. 이 수행을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해 그 결과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수식관은 콧구멍 입구에 의식을 집중하고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호흡이 어떻게 마음의 상태와 관련돼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 주정부 교육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 프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2500만명 초중고생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규모 명상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시작 단계에서 70분간의 수식관을 훈련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아침 수업 시작 전과 오후 하교 전 각각 10분의 수식관이 허락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 및 학교 종사들도 포함되는데 이미 10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이나은 기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